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 분석: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박현민 · 전자영 · 이상기 (한국교원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July 30, 2022

Revised: September 10, 2022

Accepted: September 30, 2022

Hyun-Min Park (1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t. of
English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hmpark79kr@gmail.com

Jayoung Jeon (co-author)
Graduate Student, Dept. of
English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goodjayoung1123@gmail.com

Sang-Ki Lee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
of Education
TEL: 043) 230-3513
slee@knue.ac.kr

ABSTRACT

Park, Hyun-Min, Jayoung Jeon, and Sang-Ki Lee. 2022. An analysis of multicultural aspects found in English textbooks: Focusing on first-year middle school textbook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957-977.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aim to help students have an inclusive attitude toward various cultures. Likewise, through English education,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mselves, respect others, and grow into individuals who open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this study, a total of 13 English textbooks for the current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 little more effort would be needed to deal with the content in a more balanced way in terms of race and gender. It was also found that Inner and Outer Circle countries' cultures were treated relatively evenly with Korean culture, and the proportions of cases dealing with contrastive culture and universal culture were higher than those dealing with Korean culture. In addition, while the four core value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uggested by Bennett (2010) were all witnessed throughout the analyzed textbooks, there wa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terms of the ratio of the details constituting each core value. More detailed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reof are discussed.

KEY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textbook analysis,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

1. 서론

세계화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영어는 문화가 다른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아 더욱 공고해져 가고 있다. 이에 영어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영어 교육의 주요한 목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글로벌 역량(global competence)과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 간문화적 역량(intercultural competence) 등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OECD 2018, 이혜원, 이수정, 박찬호, 김형렬 2019).

최근 전 세계가 고통을 겪은 COVID-19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적 이슈들은 여러 나라가 주체가 되어 상호 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 존중 능력의 신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영어과 핵심역량으로 영어 의사소통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함께 공동체 역량을 제시했으며, 교육과정에서 공동체 역량에 대해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여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교육부 2015, p. 4). 다시 말해, 다문화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국제 사회가 갖는 문제점과 갈등 요소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교육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다문화 학생의 증가도 확인된다.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 가정 혹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부터 실시된 교육기본통계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20% 가량 감소한 반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2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교육부 2020). 이에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속한 학교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능력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학생의 삶을 둘러싼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인 요구가 영어과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수업의 일차적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교과서에는 그 주요 내용이 교수학습에 적합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실제 영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교실에서 얼마나 충실히 구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전자영, 박현민, 이상기(2021)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의 특징을 5, 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13종 전체를 점검해보고 교과서에서 다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가 얼마나, 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았다.

- 1)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다문화적 요소는 어떻게 다루지고 있는가?
 - 1-1) 교과서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인종과 성별 분포는 어떠한가?
 - 1-2) 교과서 내용의 문화 배경과 문화 범주의 양상은 어떠한가?
- 2)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교육과 글로벌 역량 함양의 중요성

세계의 상호 의존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나라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개인의 삶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학교교육을 통해 국제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의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생태계의 파괴와 자원 고갈, 핵무기, 테러,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의 협력과 공동의 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상호의존의 필요성 증대라는 국제적 측면의 배경에 더하여, 외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학교 현장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교육해야 하는 실제적인 책무를 감당하게 되었다. 요컨대, 학생들로 하여금 전 지구적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다양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견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Hunter, White와 Godbey(2006)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글로벌 역량’이라고 칭하였다. ‘글로벌 역량’이란 자신에게 친숙한 환경을 벗어나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하며, 상이한 문화적 규범과 기대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 존중과 소통이 핵심이 된다. 또한 글로벌 역량의 함양에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 환경오염, 빈곤의 문제와 같은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대해 배우고 그와 관련하여 책임감을 기르는 책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세계시민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Muller 1988).

2.2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2000년대 이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속화되면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졌다. 초기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으로 주로 인식되었다(박경태 2008, 전세경 2017). 하지만 점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수용성과 감수성을 신장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게 되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최근의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문화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종, 성별, 학력, 언어, 종교와 무관하게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고 문화 간 편견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김선미 2000).

문화에 대한 태도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어 성인이 되어서는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문화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전자영 외 2인 2021). 이후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속에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여 다양성에 대한 존중의 태도와 바람직한 가치의 함양에 초점을 맞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중학교 영어의 성격에 대해 “외국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및 글로벌 시민 의식을 함께 기르고,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유도해야 한다(교육부 2019, p. 4)”고 명시하고 있다. 초등학교급에서 세계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력과 포용력을 요구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학교급에 이르러 문화적 소양의 습득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Bennett(2010)의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

Bennett(2010)는 다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수립에 필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가 제시하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는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acceptance and appreciation of cultural diversity),’ ‘인간의 존엄성과 보편적 인권의 존중(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universal human rights),’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responsibility to a world community),’ ‘지구에 대한 존중(reverence for the earth)’의 네 가지 내용으로 정리된다. 이상의 네 가지 핵심 가치는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확장된 의미에서의 다문화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제안된 핵심 가치의 각각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가치들이 교육과정 전반에 온전히 흡수되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다소 이상적일 뿐이라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가치의 설정은 그 자체로 교육에서의 변화와 개혁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Bennett 2010).

Bennett(2010)는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 및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에서의 목표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 가치들은 다문화 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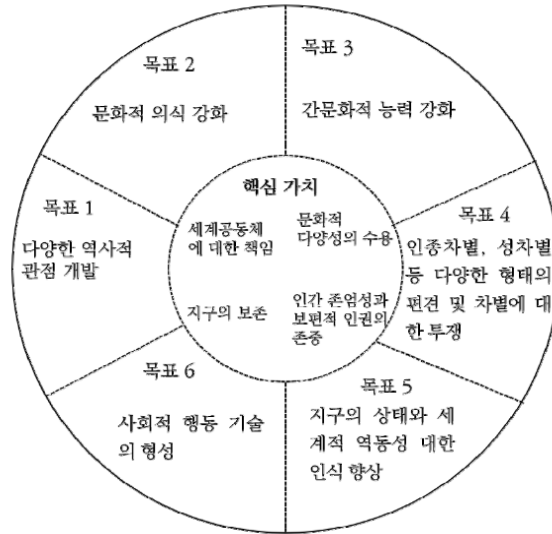


그림 1.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 모형 (Bennett 2010, p. 62)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 모형에 제시된 여섯 가지의 학습 목표는 모든 교과목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교과목을 통하여 두루 균형감 있게 접근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교과목의 특성과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Bennett 2010). 영어 교과목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이 교육과정의 주된 목표 중의 하나이므로 제시된 여섯 가지 목표 가운데 특히 ‘간문화적 능력 강화’라는 목표가 중요하다. 이때 간문화적 역량이란 “자신과 다른 표상적 의사소통(언어, 기호, 몸짓)과 무의식적인 신호들, 문화적 관심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ennett 2010, p. 63). 이러한 간문화적 역량 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타문화를 접했을 때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김혜련 2003).

한편 다문화 교육의 목표가 여섯 가지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는 데 반해 네 가지의 핵심 가치는 그 경계가 다소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지구의 보존’을 예로 들어 보았을 때 상호 간의 경계가 모호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다문화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가 상호의존적, 상호보완적이며, 또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다문화 교육은 본질적으로 분절적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특성을 가진다. 한편 Bennett(2010)는 핵심 가치를 보여주는 내용 요소들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을 더욱 구체적인 진술로 다듬어 명료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틀을 마련하였다(표 4 참조).

전자영 외(2021)의 연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5, 6학년 영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다문화적 요소의 반영 양상과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의 반영 정도를 살펴 분석한 바 있다. 해당 연구의 후속 과제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다문화적 요소와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의 반영 내용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주요한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그것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선행 연구에서와 동일한 분석 방법을 통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다문화적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1학년 교과서 13종 전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13종의 교과서는 표 1과 같으며, 이후 각 교과서를 기호로 표기하였다.

표 1. 분석 대상 교과서 목록

출판사	저자	교과서
금성출판사	최인철 외	A
다락원	강용순 외	B
동아출판	윤정미 외	C
동아출판	이병민 외	D
미래엔	최연희 외	E
비상교육	김진완 외	F
엔이능률	김성곤 외	G
엔이능률	양현권 외	H
와이비엠	박준연 외	I
와이비엠	송미정 외	J
지학사	민찬규 외	K
천재교육	이재영 외	L
천재교육	정사열 외	M

교과서의 여러 내용 가운데 본 연구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포함한 부분은 1) 도입 삽화, 2) 대화문, 3) 읽기 지문, 4) 문화란이다. 첫째, 도입 삽화는 단원의 첫머리에 제시되며 주로 단원 전체를 아우르는 그림이나 삽화를 실어 대표성이 있으므로 분석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대화문의 경우 말하기 및 듣기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된 부분으로 대화의 상황과 맥락 및 대화 참여자의 구성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 타당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 보았다. 다만 교과서 간 균형 있는 분석을 위해 각 단원에 등장하는 여러 개의 대화 중 가장 중심이 되는 비교적 긴 대화 두 개만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셋째, 읽기 지문은 단원의 주제와 주요 소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으로 다른 부분에 비해 텍스트의 분량이 많고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 전개가 이뤄지는 부분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란은 특별히 문화적 내용 요소를 담기 위해 마련된 부분으로, 그 비중이 대개 한 쪽 이내로 크지는 않으나 다문화적 요소가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대상 영역으로서의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3.2 자료 분석의 범주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서 다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모습을 살피기 위해 등장인물의 인종 및 성별의 분포, 내용 측면에서의 문화 배경과 문화 범주,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의 반영 정도를 살펴보았다.

3.2.1 인종과 성별

인종의 구분 측면에서 본 연구는 피부색에 따라 구분되는 전통적인 인종 구분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한국인은 별도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인종은 백인, 황인, 흑인, 한국인, 기타 인종으로 구분되었다. 인종에 대한 판단은 제시된 삽화와 사진, 그림 자료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적 모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판단이 모호한 경우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2 문화 배경 및 문화 범주

문화 배경은 Kachru(1998)의 동심원 이론을 따랐으며, 이때 한국 문화는 독립적인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에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어가 모국어로 쓰이는 국가들의 문화, 공용어나 제2언어로 쓰이는 국가들의 문화, 외국어로 쓰이는 국가들의 문화, 그리고 한국 문화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이 이루어졌다.

표 2. 문화 배경

문화 배경		내용
내부원	영어권 문화	영어가 모국어인 영어권 국가들의 문화 (e.g., 영국, 미국)
외부원	반(半)영어권 문화	영어가 공용어나 제2언어로 쓰이는 국가들의 문화 (e.g.,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확장원	기타 문화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비영어권 국가들의 문화 (e.g., 중국, 프랑스, 독일)
한국	한국 문화	한국 고유의 문화

본 연구에서의 문화 범주는 문화가 다루어진 방식을 뜻한다. 그 하위 범주는 표 3과 같이 한국 문화만을 다룬 경우, 한국과 외국의 문화를 함께 다루거나 비교 혹은 대조하여 다룬 경우, 특정 문화권이 아닌 보편적 문화를 다룬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이는 염보라, 안성호(2010) 및 전자영 외(2021)의 연구를 참고한 것이다.

표 3. 하위 문화 범주

문화 범주	내용
한국 문화	한국의 문화를 다룬 경우
대조 문화	둘 이상의 국가의 문화를 비교, 대조하여 다룬 경우
보편 문화	특정 문화권에 속하지 않는 보편적인 문화를 다루거나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사상을 소재로 다룬 경우

3.2.3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 분석

Bennett(2010)의 다문화 이론에 기초하여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 분석을 위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였다. 전자영 외(2021)의 연구에서는 Bennett(2010)에서 구체화한 핵심 가치의 내용에 기반을 두되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다루는 범위를 고려하여 내용 요소를 일부 수정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연구에서 적용한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 분석 방법이 중학교 영어 교과서 분석에도 여전히 적합할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초등 영어교육 및 중등 영어교육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쳤다.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문화 핵심 가치 개념 및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4. 다문화 교육의 핵심 가치 분석 범위

핵심 가치	내용 요소
문화적 다양성 수용	①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가? - 다양한 국가, 지역, 언어, 계층, 성별, 종교 등 '다름'을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문화 간 상호작용의 모습에 대해 다루는가? - 서로 다른 문화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영향과 변화 등을 다루는가? ③ 다양한 관점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비교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등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는가?
인간 존중	① 인권에 대해 다루는가? - 인권의 개념, 인권의 신장, 인권 침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가? - 다양한 영역의 차별, 편견, 고정관념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③ 나와 타자 간의 평등과 상호 존중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 나와 타자 간의 평등, 상호 존중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타나는가?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① 세계의 상호의존성을 이해하도록 돕는가? -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의존하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는가? ② 세계 공동체 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가? - 세계의 문제는 공동의 문제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는가? ③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는가? - 세계의 문제에 협력하는 태도를 통해 문제 해결력을 키우도록 하는가?
지구에 대한 존중	① 자원의 공유와 공동 보존에 대해 다루는가? - 자원의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가? - 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가? ②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해 다루는가? -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인간에 의한 자연 파괴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가? - 분리수거, 환경 보존 등 인간의 자연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가? ③ 지구상의 생물과 인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해 다루는가? -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는가?

각각의 가치 범주에서 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문화적 다양성 수용'의 가치에서는 국가, 지역, 언어, 계층, 성별 측면에서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지, 문화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및 그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돕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가치가 반영되어

있는 정도를 짚어보았다. 둘째, ‘인간 존중’ 가치에서는 인권의 개념이나 인권 신장,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을 적절히 다루는지,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올바르게 유도하고 있는지, 나와 타자 간 상호 존중의 모습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폈다. 셋째,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가치에서는 세계의 상호 의존과 영향 관계에 관해 다루는지, 세계 공동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는지, 그리고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키우도록 돕고자 의도하는 내용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폈다. 끝으로 ‘지구에 대한 존중’ 가치 측면에서는 특히 자원, 자연, 생물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자원의 공유와 보존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지, 환경오염과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등 자연에 대한 인간의 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지, 생물과 인간의 상호 의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행하였다.

3.3 자료의 분석

중학교 교과서 13종에 대한 다문화적 내용 요소 분석은 제1저자 및 공동 연구자에 의해 2022년 상반기 총 3개월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K 교과서 1~3단원에 대한 샘플 분석을 우선 실시하였다. 두 연구자의 판단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r = .92$). 샘플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부분까지 분석 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이후 분량을 나누어 독립적으로 분석을 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서 공유 및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분석 결과를 상호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상호 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등장인물의 인종과 성별

4.1.1 인종 구성

교과서의 도입 삽화, 대화문, 읽기 지문, 문화란에 등장한 등장인물의 인종 구성의 실체는 그림 2에 제시된 내용과 같았다. 한국인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백인이 35%를 차지하였다. 한국인을 제외한 황인과 흑인은 각각 9%, 7%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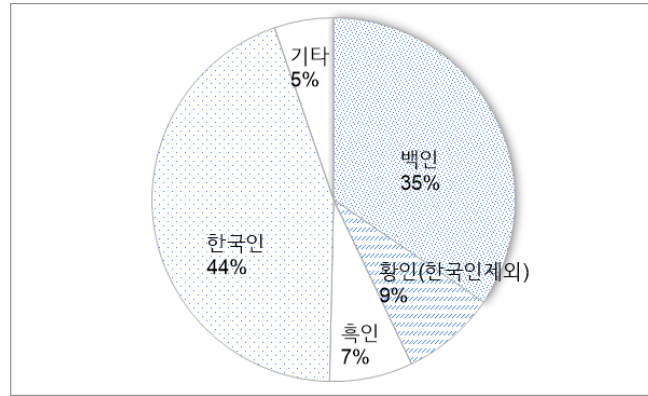


그림 2. 전체 인종 배경 구성 비율

세부적으로 분석 자료별 인종 구성을 살핀 내용은 표 5와 같았다. 도입 삽화에서는 한국인이 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백인이 35%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흑인과 황인은 8%, 6%로 그 비중이 작았다. 도입 삽화는 단원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어 대표성을 띠는 부분이다. 도입 삽화에서의 인종의 비중을 볼 때, 한국인과 백인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은 단원에서 주요하게 다뤄졌거나 여러 인종이 등장한 장면 중 대표성을 갖는 장면으로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5. 분석 자료별 인종 구성

	백인	황인	흑인	한국인	기타	전체
도입 삽화	192(35%)	35(6%)	42(8%)	256(47%)	21(4%)	546(100%)
대화문	153(35%)	6(1.4%)	36(8%)	239(54%)	5(1%)	439(100%)
읽기 지문	71(31%)	14(6%)	14(6%)	114(50%)	15(7%)	228(100%)
문화란	121(44%)	61(22%)	19(7%)	39(14%)	35(13%)	275(100%)

대화문에서는 한국인 화자가 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백인이 35%, 흑인이 8%를 차지하였고, 한국인을 제외한 황인은 2% 미만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인 가족 내 대화, 혹은 여러 명의 대화 참여자 가운데 한국인이 복수로 등장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한국인의 등장이 주요하였으며, 타 인종 가운데에서는 백인의 대화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백인 영어 원어민과 한국인의 의사소통을 교과서의 내용으로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화자 간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재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종 구성은 읽기 지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한국인이 50%의 비율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고, 백인이 31%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황인과 흑인은 각각 6%로 그 등장 비율이 백인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읽기 지문에서는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재가 내용으로 구현되며, 그 안에 인물이 등장하여 직접 대화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야기나 설명문 형식의 글 속에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다양한 소재가 다루지는 가운데 한국인 다음으로 백인의 등장이 도드라졌다는 것은 백인이 대화 참여자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읽기 지문의 소재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문화란에서는 한국인의 비중이 14%로 급격히 낮아졌다. 이는 문화란의 목표가 학습자로 하여금 여러 문화를 접하는 가운데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도록 돕는 것임을 감안하여 타국의 문화가 한국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다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문화란의 구성에서는 한국의 특정 문화와 비견할 수 있는 타 국가의 문화 내용을 병치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화란의 인종 구성 역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결정되었다. 백인이 44%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황인이 22%로 나타나 대화문이나 읽기 지문에서와 달리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영어 교과서에서 대화 참여자는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어 원어민 화자라고 할 수 있는 백인이 그 중심이었으나, 문화란에서는 주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적 균형 있게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타 인종의 비율도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혼혈 인종이 주를 이루는 남미의 여러 나라 및 미국과 호주의 원주민 등 세계 여러 곳의 다양한 문화를 문화란을 통해 소개한 결과로 파악됐다.

4.1.2 성별 구성

분석 대상 교과서 전체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별 구성은 그림 3과 같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각 56%와 44%로, 전체적으로 남성이 12%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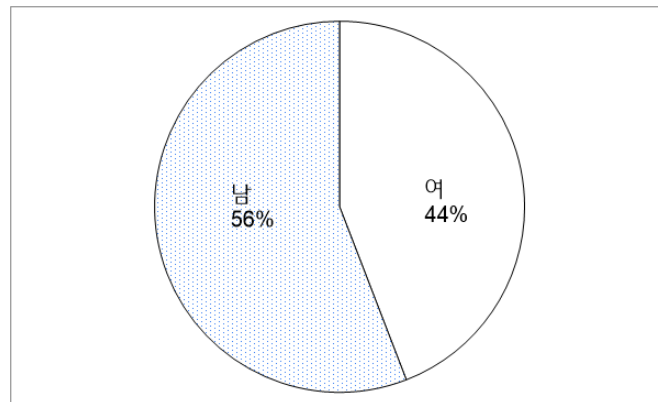


그림 3. 전체 성별 구성 비율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부 영역별로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대화문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비중이 12~15% 가량 더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입 삽화와 읽기 지문에서 남성이 더 빈번히 등장한 것은 단원의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비중 있게 다뤄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문화란에서는 주로 문화 관련 내용 요소를 소개하는 실제 장면을 담은 사진 등에서 등장인물의 성별이 드러나는데 이때 역시 남성의 등장이 더욱 빈번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7차 개정 교육과정 영어 I 교과서 다섯 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던 엄보라와 안성호(2010)의 연구에서 남성의 등장 비율이 여성의 1.5배에 달했던 데 비하면 그 차이가 다소 감소한 결과라고 하겠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개선의 노력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표 6. 분석 자료별 성별 구성

	여성	남성	전체
도입 삽화	259(43%)	340(57%)	599(100%)
대화문	187(50%)	188(50%)	375(100%)
읽기 지문	111(44%)	139(56%)	250(100%)
문화란	117(42%)	160(58%)	277(100%)

4.2 문화 배경과 문화 범주

4.2.1 문화 배경

분석의 대상이 된 교과서 13권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을 분류한 것은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및 가정과 학교를 배경으로 한 소재가 자주 등장하여 특정 문화 배경을 보여주기보다는 문화 중립적인 내용을 다루는 사례가 많았다. 그렇듯 문화 중립적인 내용들을 제외하고, 국가 정보가 분명히 드러나 Kachru(1998)의 동심원 이론에 따른 분류가 가능한 내용들에 대하여 본 연구의 분석이 이뤄졌다.

표 7. 분석 자료별 문화 배경

	내부원	외부원	확장원	한국 문화	보편 문화	전체
도입 삽화	23(24%)	9(9%)	32(33.3%)	19(19.8%)	13(13.5%)	96(100%)
대화문	3(5.1%)	2(3.4%)	16(27.1%)	11(18.6%)	27(45.8%)	59(100%)
읽기 지문	24(23.5%)	10(9.8%)	37(36.3%)	24(23.5%)	7(6.9%)	102(100%)
문화란	69(25%)	21(7.6%)	141(51.1%)	24(8.7)	21(7.6%)	276(100%)

도입 삽화에서는 확장원과 내부원의 문화가 각각 33.3%, 2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로 세계의 여러 문화가 주요한 소재로 제시되는 단원에서 각국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가 도입 삽화에 표현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C 교과서 5단원의 경우 세계 지도 위에 인도, 멕시코, 러시아,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어떠한 종류의 모자를 즐겨 쓰는지 스티커를 붙여 삽화를 완성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렇듯 다채로운 문화를 병렬로 제시하는 장면에서 확장원의 여러 나라가 다수 등장하였다.

대화문의 경우 특정 문화 배경을 다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기능을 다루게 되는 대화문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화 참여자가 등장하는 대화문에서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보편 문화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A 교과서 3단원의 어머니날에 관한 대화, G 교과서 7단원의 신데렐라 이야기에 관한 대화 등은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 문화를 다룬 사례로 분류되었다.

읽기 지문에서는 확장원의 문화 배경이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내부원과 한국 문화가 23.5%로 상호 간 동일한 비중으로 다뤄졌다. 주목할 점으로, 다른 영역에서보다 읽기 지문에서 한국 문화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는 한국인으로 상정된 읽기 지문의 주인공이 직접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향에서

내용을 전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문화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소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문화에 대해 친숙해질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문화 배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의 총 개수가 276건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때 확장원 국가들을 배경으로 한 사례가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란에 소개된 구체적인 국가 정보는 표 8에 제시되었다. 내부원의 경우 국가 수는 일곱 개로 적으나 총 등장 빈도 수는 62회로 높았으며, 그중 미국이 29회로 최다 빈도로 등장하였다. 외부원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여섯 개 나라가 총 19회 등장하였는데, 그 가운데 인도가 11회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였다. 확장원의 경우 37개 국가가 총 129회 등장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확장원 국가들의 경우 특히 문화란에서 폭넓게 다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를 개별 국가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총 20회 등장하여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하게 소개되고 있었다. 10회 이상 소개된 국가로는 프랑스, 영국, 인도, 태국이 있었다. 우리나라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국가들, 혹은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서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이 문화란에서 다수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표 8. 문화란 등장 국가

범주	국가 수	국가명	총 등장 빈도
내부원	7	USA(29), England(15), Australia(6), New Zealand(6), South Africa(3), Canada(2), Bahamas(1)	62
외부원	6	India(11), Philippines(3), Tanzania(2), Malaysia(1), Kenya(1), Poland(1),	19
확장원	37	China(20), France(17), Thailand(10), Japan(9), Italy(7), Vietnam(6), Spain(6), Mexico(5), Brazil(4), Germany(4), Turkey(4), Netherlands(3), Israel(3), Russia(3), Argentina(2), Belgium(2), Egypt(2), Indonesia(2), Norway(2), Peru(2), Switzerland(2), Austria(1), Bangladesh(1), Bulgaria(1), Cambodia(1), Chile(1), Denmark(1), Ecuador(1), Finland(1), Ghana(1), Greece(1), Iceland(1), Iran(1), Jamaica(1), Nepal(1), Saudi Arabia(1), Sri Lanka(1)	129
한국		Korea(19)	19

4.2.2 문화 범주

분석 자료별 문화 범주를 살펴본 내용은 표 9와 같았다. ‘한국 문화’로 분류된 사례들은 우리 문화를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소개하거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다. 문화란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한국 문화만을 다룬 경우는 대략 25% 전후로 나타났다. 예컨대 L 교과서 6단원에서는 푸드트럭에서 불고기 컵밥 먹기, 태권도 배우기, 박물관에서 사랑방 구경하기 등의 소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알아가는 외국인들이 등장하여 그들의 시점에서 한국 문화를 다루고 있었다. 이와 유사하게 A 교과서 6단원에서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낸 외국인들을 통해 한복, K-pop 등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아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J 교과서 9단원에서는 한국인 학생이 외국인 친구와 창덕궁을 거닐며 궁내 여러 장소를 소개하고 있었다.

표 9. 분석 자료별 문화 범주

	한국 문화	대조 문화	보편 문화	전체
도입 삽화	10(23%)	13(30%)	20(47%)	43(100%)
대화문	9(25%)	7(19%)	20(56%)	36(100%)
읽기 지문	14(24%)	20(47%)	17(29%)	51(100%)
문화란	5(4%)	88(66%)	41(30%)	134(100%)

‘대조 문화’는 둘 이상의 문화를 함께 다뤄 비교 혹은 대조를 유도한 경우였다. 읽기 지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47%가, 문화란에서는 66%가 그에 해당하였다. 교과서에서 특정 문화를 단독으로 다루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면서 그들 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공통점 및 차이점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한 사례가 다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예컨대 E 교과서 3단원, F 교과서 6단원, I 교과서 5단원, J 교과서 3단원 등은 여러 나라의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등을 다뤄 일상의 친근한 소재인 음식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비교 및 대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또한 M 교과서 4단원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생일날에 하는 일, C 교과서 5단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모자, G 교과서에서는 각 문화에서 선물을 주는 존재를 다루는 등 여러 문화를 접하며 정보를 얻고 문화 간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보편 문화’에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다루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식목일, 지구의 날, 어버이날 등 특정 캠페인이나 인류 보편적 사상에 관한 내용,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위인을 다룬 경우가 이에 해당하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M 교과서 5단원의 해달을 보호하는 국제자연보호연맹이나, L 교과서 5단원 남극기지 이야기 등을 들 수 있었다. K 교과서 5단원의 문화란에서는 램프라이터, 아이스커티, 길거리미용사 등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직업을 소개하여 중단점 관점에서 직업의 변천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편 문화’의 경우 ‘한국 문화’나 ‘대조 문화’에 비해 도입 삽화와 대화문에 자주 등장하였으며, 문화란에서도 심화된 내용으로 다루지면서 전체 중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4.3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반영된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의 영역별 반영 빈도를 전체적으로 살핀 결과는 그림 4의 내용과 같았다. 빈도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우선 ‘문화적 다양성 수용’이 202회로 다른 핵심 가치에 비해 등장 빈도가 높았다. ‘지구에 대한 존중’와 ‘인간 존중’의 가치는 비슷한 비율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문화적 다양성 수용’의 1/3 수준으로 총 57회의 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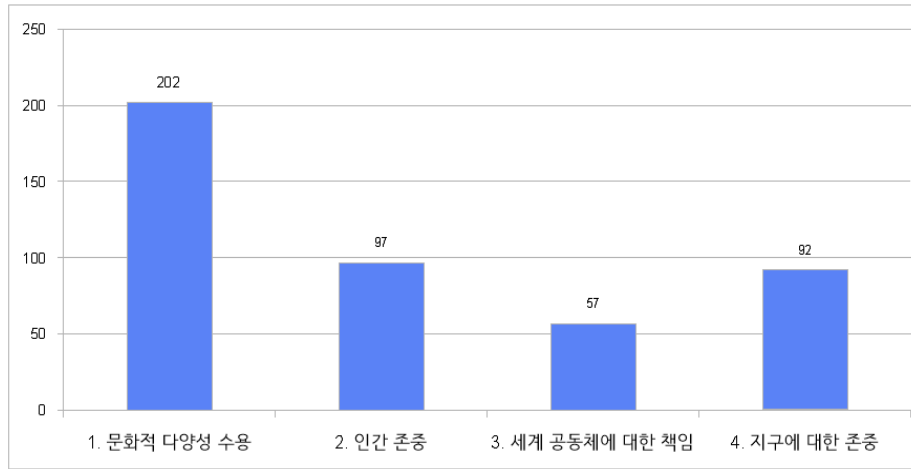


그림 4.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 영역별 반영 빈도

4.3.1 문화적 다양성 수용

‘문화적 다양성 수용’ 가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았다. ‘다양한 문화 소개’ 사례가 총 160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관점 개발’이 3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문화간 상호 작용’은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문화간 상호 작용’의 예시로, C 교과서 7단원의 본문에서 주인공은 남해를 여행하는 중 독일인 마을을 방문하여 독일식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돌아와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을 현재의 중학생이 방문하여 다층적인 문화 간 상호작용을 보여준 사례였다. ‘관점 개발’의 예시로는 K 교과서 7단원의 문화란에 제시된 ‘문화 빙산 지도 그리기’를 들 수 있었다.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 빙산을 완성하며 문화의 여러 측면을 보이는 문화와 보이지 않는 문화로 구분해보도록 하였는데, 해당 활동을 통해 문화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관점을 개발하도록 이끌고 있었다. D 교과서 8단원의 문화란에서는 나이를 세는 방법, 실내에서 신발 벗기, 한국의 상차림 등 한국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었고, 이 역시 ‘관점 개발’의 예시가 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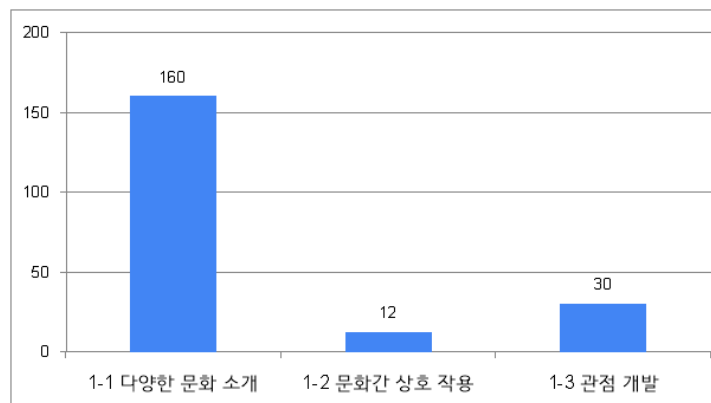


그림 5. 문화적 다양성 수용 핵심 가치 반영 빈도

4.3.2 인간 존중

‘인간 존중’ 가치에 대해서는 그림 6에 그 세부 내용이 제시되었다. 세부 가치 가운데 ‘상호 존중 모습’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주로 가족 사랑과 우정을 다루는 단원에서 폭넓게 다루어졌다. 일례로 E 교과서 2단원의 본문에서는 친구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벽화를 완성하는 내용을 통해 ‘상호 존중 모습’을 다루고 있었다. 그에 비해 ‘차별 및 편견 비판’과 ‘인권’을 다루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는 그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비교적 간단한 표현들로 내용을 구성하게 되므로 복잡한 언어를 활용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며, 차별과 편견, 인권 등을 중심 주제로 다루는 데에도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 추론된다. ‘인권’을 다룬 예시로는 M 교과서 4단원의 본문에서 다룬 학급회의 장면을 들 수 있었다. 해당 예시에서는 급우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SNS 단체 대화방에서 토의 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 인권 의식이 반영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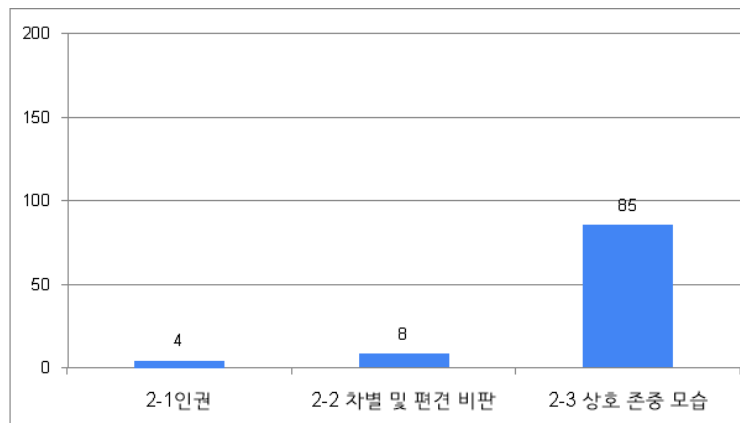


그림 6. 인간 존중 핵심 가치 반영 빈도

4.3.3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그림 7은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한 핵심 가치의 반영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호 의존성’과 ‘공동체의 문제 이해’를 중심에 두고 내용이 구성된 경우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질적인 실천 과제를 찾고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했다. 즉, 중학교 1학년의 수준에서 학생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영어로 표현하고 실질적 의사소통을 목표로 하여 내용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A 교과서 7단원에서는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앞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버스 승강장 대기 줄이 주변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중교통에서의 불편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아이디어를 통해 공공의 편의를 도모한 사례를 다루었다. ‘공동체의 문제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학생들의 일상에 밀착된 예로 풀어간 경우라 하겠다. 한편,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등은 지구공동체의 문제로, 이를 이해하고 그 해결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방안을 찾는 내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을 주로 다루고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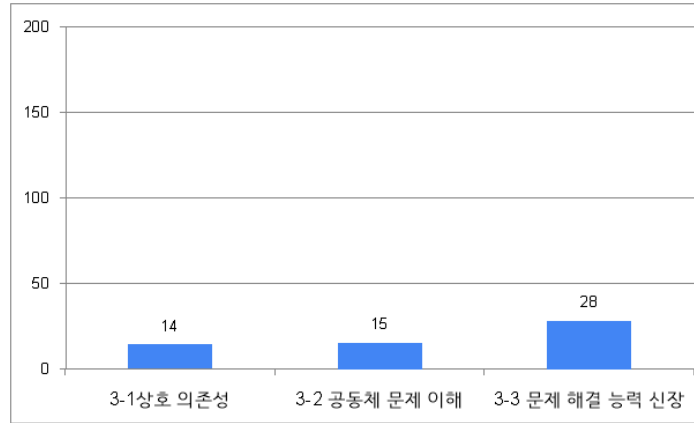


그림 7.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 핵심 가치 반영 빈도

4.3.4 지구에 대한 존중

그림 8은 ‘지구에 대한 존중’ 관련 핵심 가치의 세부 주제 및 출현 빈도를 보여준다. 해당 가치와 관련된 내용에는 자연 보호, 종의 다양성 보호, 자원 절약 등 지구 공동체의 상호 의존성 및 그에 따른 인간의 역할이 포함되었다. L 교과서의 5과에서 남극 과학기지 요리사의 일기를 통해 남극에서의 탐사활동을 소개하며 자원 공유와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한 부분, K 교과서의 4단원에서 청바지로 만든 컵홀더, 낡은 텐트로 만든 에코백 등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구를 보호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부분을 그 예로 들 수 있었다. 해당 예시들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서 지향하는 바가 단지 다양한 인간 집단들 사이의 문화 이해와 상호작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간과 필연적 관련성을 맺는 자연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까지를 포함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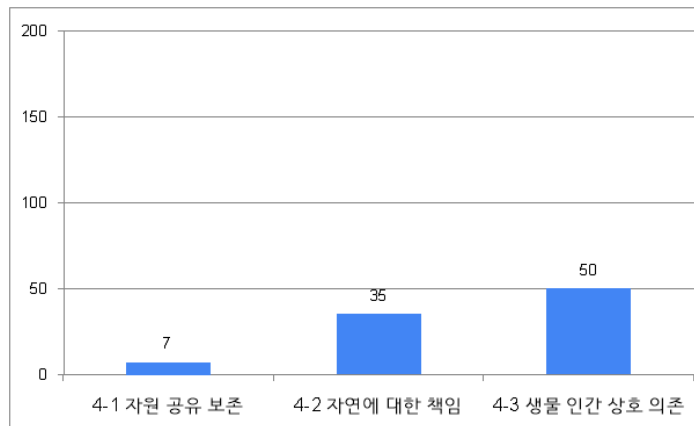


그림 8. 지구에 대한 존중 핵심 가치 반영 빈도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 총 13종에 대하여 다문화적 요소가 다뤄지고 있는 양상 및 Bennett(2010)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 핵심 가치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두루 살펴보았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인종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백인의 등장 횟수가 눈에 띄게 높았으며, 성별 측면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비율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인의 등장 횟수가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영어 의사소통 상황에서 주된 대화 상대자를 백인 영어 원어민으로 상정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영어가 국제 공용어로서 인종과 국적을 넘어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만남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한국인의 대화 상대자가 주로 백인으로 상정되고 있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성별의 경우 대화문에서 남녀의 성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제시된 것에 반해 기타 모든 분석 자료에서 남성의 비중이 1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재로서 영어 교과서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인종과 성별 측면에서 그 내용을 보다 균형 있게 다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문화 배경과 문화 범주 측면에서는 분석 자료별로 차이를 보였다. 문화 배경 측면에서는 도입 삽화와 읽기 지문에서 확장원, 내부원, 한국 문화가 두루 등장하여 단원의 주제가 비교적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 문화란의 경우 확장원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높았으며, 문화란을 통해 영어권을 넘어 다양한 언어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의 문화를 보여 주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부원은 모든 부분에서 10% 미만으로 다뤄져 그 비중이 작았고, 이는 다문화적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었다. 문화 범주 측면에서는 한국 문화보다는 대조 문화와 보편 문화를 다루는 경우들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이는 단일 국가에 대한 지식이 아닌, 여러 문화 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관점을 키우도록 돕고자 노력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문화적 감수성의 함양이라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바람직한 내용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Bennett(2010)가 제시한 다문화 핵심 가치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범주에서 네 가지의 핵심 가치가 두루 다뤄지고 있었으며, 세부적으로는 먼저 ‘문화적 다양성 수용’의 가치에 대해서 ‘다양한 문화 소개’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관점 개발’과 ‘문화 간 상호작용’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한편, ‘관점 개발’과 ‘문화 간 상호작용’의 경우, 그 빈도가 높지는 않을지라도 학생들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적 내용에 대해 단편적 지식을 넓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고 상대 문화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영어과 핵심역량 중의 하나인 ‘공동체 역량’은 물론 다문화 교육에서의 ‘글로벌 역량’에서 추구하는 목표와도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한편, 나머지 세 개의 가치 범주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 측면에서 다소 편중된 구성이 눈에 들어왔다. ‘인간 존중’ 가치 범주에 대해 ‘상호 존중 모습’의 비율이,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범주에 대해 ‘문제 해결 능력 신장’의 비율이, ‘지구에 대한 존중’의 가치 범주에 대해서는 ‘생물 인간 상호 의존’ 및 ‘자연에 대한 책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련 내용들이 제시되는 방식과 교수학습 상황에서 전개

되는 활동 측면에서 세심한 개선의 노력이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단편적 내용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이해와 포용의 자세 및 감수성의 함양을 그 지향점으로 한다. 학생들이 영어 교과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조망하는 시각을 기르고 타인을 존중하며 열린 자세로 상호 소통하는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영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교과서에 대한 반성적인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참고문헌

- 강용순, 김해동, George Whitehead, 권혜연, 구나현, 한경 외(Kang, Y., H. Kim, G. Whitehead, H. Kwon, N. Gu, K. Han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다락원(Seoul: Darakw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5. 『영어과 교육과정』(*Curriculum for English Language Education*),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4]. 세종: 교육부(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2021 Educational Basic Statistics*). 월드와이드웹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2년 7월 10일에 검색했음.
- 김선미(Kim, S.). 2000. 다문화 교육의 개념과 사회과 적용에 따른 문제(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problems accompanied with its adaption to social studies). 《사회과교육연구》(*Journal of Social Studies Education*) 4, 63-81.
- 김성곤, 서성기, 이석영, 최동석, 강용구, 김성애 외(Kim, S., S. Seo, S. Lee, D. Choi, Y. Kang, S. Kim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엔이능률(Seoul: NE Neungyule).
- 김진완, 황종배, Judy Yin, 이윤희, 신미경, 조성옥 외(Kim, J., J. Hwang, J. Yin, Y. Lee, M. Shin, S. Cho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비상교육(Seoul: Visang Education).
- 김혜련(Kim, H.). 2003. 초등영어 문화교육: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위하여(Culture teaching in primary English education: Towar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mmunicative competence). 《초등영어교육》(*Primary English Education*) 9(1), 69-95.
- 민찬규, 김윤규, 정현성, 이상기, 최진희, 박세란 외(Min, C., Y. Kim, H. Jung, S.-K. Lee, J. Choi, S. Park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지학사(Seoul: Jihak Publishing).
- 박경태(Park, K.).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이주노동자, 화교, 혼혈인』(*Minorities and Korean society: Migrant workers, overseas Chinese, and people of mixed race*). 서울: 후마니타스(Seoul: Humanitas).
- 박준언, 김명희, 김수연, 박병륜, 양소영, 최희진(Park, J., M. Kim, S. Kim, B. Park, S. Yang and H. Choi).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와이비엠(Seoul: YBM).

- 송미정, 권진아, 모윤숙, 신정아, 이수하, 유현주 외(Song, M., J. Kwon, Y. Mo, J. Shin, S. Lee, H. Yoo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와이비엠(Seoul: YBM).
- 양현권, 이창수, 김기택, 최정윤, 고아영(Yang, H., C. Lee, K. Kim, J. Choi and A. Go).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엔이능률(Seoul: NE Neungyule).
- 염보라, 안성호(Yeom, B. and S. Ahn). 2010. 현행 <영어 I> 교과서의 암묵적인 문화적 가정에 대한 분석: 다문화주의 관점에서(An analysis of tacit cultural assumptions in current 'High School English I' textbooks: From the perspective of multiculturalism). 《다문화 교육연구》(*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3(2), 64-89.
- 윤정미, 이희경, 강은경, 송형호, 장성욱, 염미선 외(Yoon, J., H. Lee, E. Kang, H. Song, S. Jang, M. Yeom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Seoul: DongA).
- 이병민, 이상민, Kim Christian, 고미라, 김수연(Lee, B., S. Lee, C. Kim, M. Go and S. Kim).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동아출판(Seoul: DongA).
- 이재영, 안병규, 오준일, 배태일, 김순천, 박성근 외(Lee, J., B. Ahn, J. O, T. Bae, S. Kim, S. Park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Seoul: Chunjae Education).
- 이혜원, 이수정, 박찬호, 김형렬(Lee, H., S. Lee, C. Park and H. Kim). 2019. 글로벌 역량 교육의 핵심 학습요소와 영역에 대한 질적 메타분석(Identifying key learning components and dimensions in global competence education: A qualitative meta-analysis), 《비교교육연구》(*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9(1), 1-31.
- 전세경(Jeon, S.). 2017. 우리나라 다문화교육 정책의 성과 및 특징과 과제에 대한 고찰(A study on the achievements, characteristics and task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 Korea). 《인구교육》(*Korea Journal of Population Education*) 10, 83-105.
- 전자영, 박현민, 이상기(Jeon, J., H.-M. Park and S.-K. Lee). 2021. 2015 개정 교육과정 영어 교과서의 다문화적 요소 분석: 초등 5, 6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An analysis of multicultural aspects found in English textbooks in Korea: Focusing on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textbooks). 《외국어교육》(*Foreign Languages Education*) 28(3), 153-178.
- 정사열, 이성림, 홍숙한, 강윤희, 이현주, 성현영(Jung, S., S. Lee, S. Hong, Y. Kang, H. Lee and H. Sung).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천재교육(Seoul: Chunjae Education).
- 최연희, 유원호, 박유정, 주혜연, 이수윤, 김기중 외(Choi, Y., W. Yoo, Y. Park, H. Joo, S. Lee, K. Kim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미래엔(Seoul: Mirae N Books).
- 최인철, 박태자, 서원화, 홍우정, 강유나, 송다겸 외(Choi, I., T. Park, W. Seo, W. Hong, Y. Kang, D. Song et al.). 2018. *Middle School English 1*. 서울: 금성출판사(Seoul: Kumsung Publishing).
- Bennett, C. I. 2010.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7th ed.). Boston: Allyn & Bacon.
- Hunter, B., White, G. P., and Godbey, G. C. 2006. What does it mean to be globally competent?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3), 267-285.

- Kachru, B. 1998.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ller, R. 1988. "The Need for Global Education" (from a speech presented by World Federalists of Canada, see "Can Man Save This Fragile Earth?" *National Geographic* 174(6).
- OECD. 2018. *Preparing out youth for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world: The OECD PISA global competence framework*.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education/Global-competency-for-an-inclusive-world.pdf>

Examples in: English, Korean
Applicable Language: English, Korean
Applicable Level: Secondary, Tertiary